

馬王堆醫書, 黃帝內經, 金匱要略에 나타난 中國 古代 外治療法

박태열 · 고우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외관과학교실

The Early External Medical Treatment of China described in the Mawangteu medical books, the Hwangjenaekyeong and Geumgweoryak

Park Tae Yeol, Ko Woo Shi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Oriental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Class,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At present in many cases the methods of medical treatment in Oriental medicine Korea lays emphasis on internal use, but to improve the curative value and for the diversity of medical treatment it is desperately needed to study external medical treatment more deeply. From the viewpoint of medical science history, as various additives and new discoveries are developed this has made it easy to use and improved the curative value of it ; thus external medical treatment has been rapidly progressed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in studying the external medical treatment,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it's history. So, I intend to study the early external medical treatment first. The external medical treatments mentioned in the Mawangteu medical books (52Byeongbang, Yangsangbang, Japryobang, Taesanseo), Hwangjenaekyeong, and Geumgweoryak which were written or presumed to be written in early times were examined to study the early external medical treatments. The parts of body or diseases in which external medical treatments were applied; the methods of external applic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 the number of prescriptions, and the herbs used are also examined.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I compared the kinds of books with the itemized lists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1) Though Mawangteu medical books (52Byeongbang, Yangsangbang, Japryobang, Taesanseo) was written earlier than Hwangjenaekyeong and Geumgweoryak, there are more incidents of the disease in which external medical treatments were applied, the methods of external applic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 the kinds of prescriptions , and the different herbs used in Mawangteu medical books than in Hwangjenaekyeong and Geumgweoryak. 2) In the six medical books mentioned above there are more prescriptions for external diseases and dermatitis than for internal diseases. 3) From the viewpoint of the number of prescriptions, the most frequent use of a medicine type was a natural type of medicine. The second was ointment type, and the third was liquid type. A powder type was the fourth. 4) In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 combination types such as both pasting and plastering were used most frequently. 5) Vegetable, mineral and animal nature herbs were used diversely for the early external medical treatments. Things such as wine and vinegar were also used as a herb.

Key words : Mawangteu medical books, Geumgweoryak, external application

서 론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에서의 약물치료방법은 많은 경우가 내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질병에 따른 치료의 효율을 제고하고 치료법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외치요법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

* 교신저자 : 고우신,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wsko@hyomin.dongueui.ac.kr Tel : 051-850-8657

· 접수 : 2002/04/12 · 수정 : 2001/06/07 · 채택 : 2002/07/22

하다고 생각된다. 外治療法은 內治療法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¹⁾ 黃帝內經에서는 “(上略)調氣之方 必別陰陽 定其中外 各守其鄉 內者內治 外者外治 微者調之 其次平之²⁾(下略)”라 하였는데 外治를 질병이 외부에 있으면 從外而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생활환경이 험악하고 위생조건도 불리하여 맹수나 독충, 독사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전투, 노동, 화상 등으로 인하여 각종 외상이 불시로 발생하였으며 치료를 위해서 泥土, 樹皮, 草莖, 唾液 등을 사용하는 원시적 수준의 외치요법이 사용

되었다. 이후 역대의 많은 의가들은 외치요법으로 內證을 치료하는 기능은 점차 忽視하고 外證治療에만 전용하였으며 역대의 외치요법에 대한 내용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문적인 내용으로 줄어들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吳師機에 의해 계통적인 논술과 지극히 풍부해진 내용으로 중국의 외치요법은 정상에 까지 발전하게 되어 꽃을 이루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清代 吳師機에 의해 외치요법이 더한층 발전을 거듭한 이후 다양한 제형과 영역에서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의 외치요법학회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대학 등 여러 연구단체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 문명의 발달로 현대에는 외치요법도 이전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많은 처방이 제시되고 특수한 추출법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하거나 각종 첨가물이나 소재를 사용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치료효능이 향상되었으며 치료영역도 확대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있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 약의 내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내복하거나 이전의 방법에 비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거나 내복약의 보조요법제로 치료효과를 높여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내치요법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외치요법제가 개발된다면 획기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다양한 제형과 방법으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치요법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가 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黃帝內經의 저작 전후의 고대에는 어떤 외치요법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고대 외치요법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黃帝內經 전후시대의 외치요법을 연구하였는데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토된 長沙 馬王堆漢墓출토醫書(이하 馬王堆醫書라 칭함.) 15종 중에서 외치요법이 사용된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등 帛書 4종과 동양의학의 이론서며 戰國初期에서 後漢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고있는¹⁾ 黃帝內經과 黃帝內經 이후의 저작으로 漢나라 장사대수 張仲景의 金匱要略등 모두 6종의 醫書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방법

1) 黃帝內經의 정의대로 외치요법이 從外而治하는 것이라면 침구, 도인술, 안마, 외과적 수술법, 추나요법, 약의 외용법, 祝由法 등 다양한 방법이 넓은 의미에서 외치요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외과적 수술법이나 침구, 도인술,

안마, 추나요법 등은 각기의 고유한 치료영역으로 발전하였고 呪文을 외는 등 祝由法은 미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치요법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약물을 직접 외용하거나 치료효과를 상승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여 외용한 경우는 인정하였다.

2) 외치요법이 사용된 대상질환, 외용약의 제형, 시술 방법, 사용된 처방의 수, 사용된 본초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하여 분류 및 비교함으로써 고대 외치요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3) 특히 馬王堆醫書 4종은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손상이 심하여 글자의 고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손상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손상으로 인하여 정확한 글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고증을 통하여 추정된 글자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4) 처방 중에 외치요법 이외의 치료법이 겹치는 경우는 외치요법으로 인정하였으며 한가지 처방에서 2가지 이상의 시술법이나 제형이 제시된 경우는 처방의 수는 1개로 인정하고 시술법이나 제형은 제시된 수대로 인정하였고 한가지 처방으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질환에 사용된 경우는 처방 수는 1개로 인정하고 각각의 대상질환을 인정하였다.

5) 손상으로 인하여 처방의 내용으로 볼 때 외치요법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本草名이 소실된 경우는 외치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本草名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외치요법에서 제외하였다.

6) 한 가지 本草를 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표기하거나 같은 本草를 의미하는 것은 한가지로 인정하였으나 사용 부위에 따라 효능이 다른 本草는 각기 다른 本草로 인정하였다.

7) 제형의 분류와 시술법 등은 신광호 의 한의외치요법학²⁾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기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명명하였다.

본 론

1. 외치요법을 사용한 대상질환

1) 五十二病方

五十二病方에는 책머리에 凡五十二 즉 52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매 항목에서는 어떤 한 부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모두 103개의 병명이 있다. 그 중에서 외치요법을 사용한 대상질환은 51개로 조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외과질환: 傷者, 刃傷, 止血, 金傷, 久傷, 令傷母癢, 傷瘻, 疔傷, 疔久傷, 狂犬齧人, 犬齧, 烏喙中毒, 뇌(厲下虫字), 蛭蝕人胎股[膝], 蛇齧, 虻, *蠱者

소아과질환: 嬰兒索瘰, 嬰兒病癩

신경정신과질환: 人病馬不癩

내과질환: 癰, 癩, 牡痔, 牝痔, 血痔, 胸癢

치과질환: 蟲蝕

피부과질환: 白處, 爛, 胎膿, 疽, 盆疽, 爛疽, 大帶, 螟, 痂, 濡

1) 신광호, 한의외치요법학, 서울:대성의학사, p. 3, 2000
 2) 배병철, 금석 황제내경, 서울:성보사, p. 812, 1994
 3) 홍원식, 윤창열, 중국의학사, 서울:일지사, pp. 14~15, 2001
 4) 상계서, p. 579
 5) 상계서, p. 73
 6) 상계서, p. 89
 7) 신광호, 한의외치요법학, 서울:대성의학사, p. 4, 2000

8) 상계서, pp. 57~180

9) 김남일, 인창식,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인문화사, p. 220, 2000

痲, 產痲, 乾痲, 癰, 身有體癰腫者, 頤癰, 皮膚美容, 痲(彭下泰字), 乾癩, 身疔, 露疔, 疥, 去人馬疣, 마(尸下馬字)

미상: 夕下(피부병일 것으로 추정)

이것을 정리해보면 주로 외과질환은 18종이며 피부과 질환은 24종으로 전체 52종 중에 42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신경정신과 질환, 소아과 질환, 내과질환에도 외치요법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蠱蝕에서는 치과질환에도 사용한 예가 있다. 각과별로 외치요법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외과질환

- 칼 등에 손상을 받았을 때는 양분을 태워서 그것을 바른다고¹⁰⁾.
- 상처에는 속단의 근 한 단과 獨(獨活이나 獨樵<황기의 별명> 일 가능성이 있다)*의 긴 가지 2개, 황금 2개, 감초 *개, 기을에 채취한 부자 二*****者의 小盆에 二盛盆을 즉시 함께 해서 바삭 조려서 *, 잘 익히지 않으면 麻布로 꼭 짜서 그 즙을 내고 남은 麻屑로 **, [그것을 붙인다.]¹¹⁾
- 광견이 사람을 문 경우: 恒石<長石이 아닌가 추측된다>을 2개 쥐고 그것을 잘 문질러서 쌀가루 같이 분쇄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가 문 곳에 바르면 낫는다¹²⁾.
- 독사에 물린 경우: 난초<등골나물>에 해당. 고대의 난초에 대해서 설이 많다.>를 잘게 썰고 술을 부어서 그 국물을 마시고 남은 찌꺼기로 그 상처를 붓고 때때로 바꾸어주어서 以熏*¹³⁾.

(2) 소아과질환

- 영아의 간병<뇌염 등을 포함한 각종성 경련으로 생각된다>에 걸렸을 때의 처방: 雷丸 3개를 가지고 잘게 부수고 돼지의 바삭 조린 고와 함께 혼합한다. 작은 영아라면 [반]말을 사용하고 큰 영아라면 한 말을 사용한다. 3등분한 혼합물의 한 등분을 가지고 물 속에 넣고 잘 저어서 그것을 끼얹는다. 끼얹는 데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내려가 몸체의 구석구석 끼얹지만 사지를 적서서는 안 된다. 3일에 한번 끼얹으면 3일로 치료된다¹⁴⁾.

(3) 정신과질환

- [사람이]馬不癘의 병에 걸린 경우: *그것을 病者에게 퍼붓는다. 病者가 여[자]라면 *, 남자 라면 *, 즉시 여자의 初潮가 묻은 布를 태워서*¹⁵⁾.

(4) 내과질환

- 癰病: 箱에든 戎鹽 또는 美鹽<중국 서북부의 건조지대의 鹽湖 등의 토양에서 채집되는 식염>을 음낭에 고루 바르고 다시 그것을 음낭의 *의 밑과 그 위에 바르고 햇볕에 쪼이든가 또는 *¹⁶⁾.
- 牝痔에 구멍이 있어서 오그라들고 출혈하는 경우의 처방: 여자의 속옷을 가지고 태워서 그릇 안에 두고 痔를 熏하면 3[일]로 출혈이 멈춘다¹⁷⁾.

(5) 피부과질환

- 疽病: 疽가 생기기 시작한 때는 商陸을 가지고 식초 안에 담그

고 그것을 부은 곳에 눌러 댄다¹⁸⁾.

- 爛: 곡류 싹 띄운 것(糜米)을 잘게 부수고 乳汁<人乳汁으로 본다.>으로 혼합시켜서 그것을 바른다고. 아프지 않고 상처흔적을 남기지 않는다¹⁹⁾.

(6) 치과질환

- 蠱蝕: 賁이 이빨을 씹는다면 榆皮, 백* 좋은 계를 사용하고 함께 해서 **** 구멍에 바르고*²⁰⁾.

2) 養生方

養生方은 10개 대상질병에 외치요법을 사용했다. 이것을 정리하면 주로 남녀의 性 관련 내과질환이나 양생법에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다.

남녀 성 관련 내과질환: 不起, 病最腫, 勺, 益甘, 戲, 去毛, 양생법: *巾, 除中益氣, 走, 疾行

養生方에 사용된 외치요법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성 관련 내과질환

- 勺: 取乾薑桂要菴蛇床**皆治之 各等 以蜜若棗脂和丸 大如指端 裹以疏布 入中 熱細²¹⁾
- 病最腫: 治柳付 與臈膏相擊和 以傳腫者 已 卽裹以布²²⁾
- 戲: 새 항아리에 守宮을 담아 丹砂를 먹이고, 守宮이 죽으면 그 守宮을 갈아 만든 약을 여자의 팔 혹은 전신에 발라 색을 물들여두면, 그 물들여둔 색이 흐려지는 것으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²³⁾.

(2) 양생법

- *巾: 取鷄 纒能卷者 產臈 盡去毛 遺兩翼之末 以係縣竿****鷄摩 蜂房一大者 令蜂蚩之 厭 又徙之 令以蚩死 死 卽脫去其****其肌 善治[以]布麗之 已而以邑棗之脂舂之 而以涂布巾 卽以巾摩足 ****四五乃復 以二巾爲卒 *足者少氣 此令人多氣²⁴⁾
- 除中益氣: 以豬膏大如手 令蜂*****醇糟四斗善治* 卽弗欲 洒之²⁵⁾

3) 雜療方

雜療方에서는 남자 및 여자의 性 보전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어서 성 보건관련 내용이 중심 내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²⁶⁾. 외치요법으로 性기능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수 있는데 사용된 대상은 內加, 約, *痒, 蠶虫蛇射 등 4가지로 조사되었다. 이 중 內加는 남성 성 기능 장애를 뜻하며, 約은 여성 성 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蠶虫蛇射는 독충이나 독사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외치법을 소개하고 있다.

남성 성 관련 내과질환: 內加

여성 성 관련 및 부인과질환: 約, *痒

10) 김명숙, 오십이병방의 연구, 학위논문, p. 44, 1998

11) 상계서, p. 45

12) 상계서, p. 49

13) 상계서, p. 52

14) 상계서, p. 52

15) 상계서, p. 58

16) 상계서, p. 59

17) 상계서, p. 60

18) 상계서, pp. 69~70

19) 상계서, p. 72

20) 상계서, p. 80

21) 김남일, 인창식,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인문화사, p. 438, 2000

22) 상계서, p. 439

23) 상계서, p. 378

24) 상계서, p. 440

25) 상계서, p. 441

26) 상계서, p. 379

외과질환: 蠶虫蛇射

雜療方에 나타난 외치요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남성 성기능 장애

· 內加: 取穀汁一斗 漬蓄白布二尺 **蒸 盡汁 善藏留用 用布搵中 身舉去之²⁷⁾

(2) 여성 성기능 장애

· 約: 取蕃石 蕉莢 禹熏三物等 ***一物 皆治 并合 爲 爲小囊 入前 中 如食間 去之²⁸⁾

(3) 외과질환

· 令蠶母射(중략) 一曰: 取丘引(蚯蚓)之矢 蒸(蒸) 以熨之²⁹⁾

4) 胎產書

한의학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적 인 胎產書³⁰⁾에서는 주로 태아의 보양, 태아의 성전환법, 임신방법, 胞胎처리 및 매장법, 산후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외치요법이 사용된 것은 字者에 사용한 한가지 처방이 있다. 胎產書에 나타난 외치요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字者 且垂字 先取市土濡滑者 *之方三四尺 高三四寸 子既產 置土上 勿庸* 令嬰兒 *上 其身盡得土 乃裕之 爲勁有力³¹⁾

5) 黃帝內經

黃帝內經은 靈樞에서 寒痺, 季春痺 두 가지 질병에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외치요법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상략)

黃帝께서 가라사대, “寒痺를 刺하여 熱을 內(納)함은 어떻게 합니까?”

伯高가 답하여 가로되, “布衣를 刺하는 자는 火로써 이를 焯하고, 대인을 刺하는 者는 藥으로써 이를 熨합니다.”

黃帝께서 가라사대, “약으로 熨함은 어떻게 합니까?”

伯高가 가로되, “醇酒20升과 蜀椒1升과 乾薑1斤과 桂心1斤해서, 무릇 4種을 用하여 모두 咬咀해서 酒中에 漬하고 絮棉1斤과 細白布4丈을 用하여 아울러 酒中에 內하여, 酒를 馬矢燼中에 置하되, 蓋를 塗로 封하여 하여금 泚하지 못하게 하고(나서) 5日 5夜에 (滿 5日만에) 布棉絮를 出하여 曝乾하고 乾하면 다시 漬하여 써 그 汁을 盡하되 每번 漬할 때마다 반드시 그 日을 晡하여서야(만 하루만에야) 비로소 出하여 말립니다. 乾하거든 滓와 綿絮를 아울러 用하여 布를 複하여 複巾을 만들되(布를 겹으로 하여 자루를 만들되) 長을 六七尺으로 (하여) 六七개의 巾을 만들면 生桑炭을 用해서 巾을 炙하여 써 寒痺로 刺한 處를 熨하여 하여금 熱로 病所에 至하게 하는데, 寒하게 되면 다시 巾을 炙하여 熨하게 하여 30遍 하여 止하고, 汗이 出하거든 巾으로써 身을 拭하되 또 한 30遍하여 止합니다. 起하여든 內中을 步하여 風을 見하지 말아야 합니다. 每번 刺할 때마다 반드시 熨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病이 已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內熱(納熱)입니다.”³²⁾

(상략) 이를 治함은 馬膏로 그 急한 處(者)를 膏하고(馬膏을

붙이고) 白酒를 梘와 和하여 써 그 緩한 處(者)를 塗하고(나서) 甕나무 갈고리로 이를 鈎하고(늘어진 곳을 당겨 걸고) 곧 生桑炭을 坎中에 置하되 높이(高下)를 坐(했을 경우의 얼굴 높이)와 等하게 하여 (馬)膏로써 急한 處를 熨하고 또 美酒를 마시게 하고 맛있는(美) 炙肉을 噉하게 하는데, 술을 마시지 못하는 者는 스스로 強(飲酒)하고 三拊(세번 정도 문지름)하고 已합니다. 治(療)는 燔鍼으로 劫刺함에 있는데, 知(하는 것으)로써 數를 (定)하고 痛(處)로써 輸를 삼으니 名을 季春痺라 한다³³⁾.

6) 金匱要略

金匱要略에서 외치요법이 사용된 대상질환은 17종이다.

(1) 내과질환: 百合病, 頭風, 脚氣冲心, 狐惑病(狐蠅病)

(2) 외과질환: 金瘡, 浸淫瘡

(3) 부인과질환: 婦人白帶下, 婦人陰冷, 陰中生瘡, 陰中蝕瘡爛

(4) 치과질환: 小兒疳蟲蝕齒

(5) 구급방: 卒死, 中暈死, 尸蹇, 縊死, 溺死, 落傷

이것을 정리하면 내과질환이 4종이고 외과질환이 2종이고 부인과질환이 4종이고 치과질환이 1종이며 5종의 구급방에 외치요법이 사용되었다. 金匱要略에 나타난 외치요법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 百合病이 1개월을 경과해도 낫지 않고 渴症으로 전변된 경우 에는 百合洗方으로써 주로 치료한다³⁴⁾.

· 浸淫瘡은 黃連粉으로 主治한다³⁵⁾.

· 蛇床子散方은 陰中을 따뜻이 하는 坐藥이다³⁶⁾.

· 尺部の 脈象이 滑하면서 게다가 數를 나타내는 것은 陰部에 宗기가 나있는 것을 의미하며 陰部에 宗기가 생겨 진물러 있는 경우에는 狼牙湯으로 洗滌한다³⁷⁾.

2. 藥의 제형

1) 五十二病方

五十二病方에서 외치요법이 사용된 제형은 10가지로 膏劑, 湯劑, 散劑, 丸劑, 煎劑, 類膠劑³⁸⁾, 自然劑³⁹⁾, 漬劑, 藥布劑, 藥囊劑 등이다. 그 중 膏劑를 사용한 처방은 35개, 湯劑 20개, 自然劑 20개, 散劑 16개, 漬劑는 12개, 煎劑는 9개, 藥布劑 6개, 丸劑 2개, 類膠劑 2개의 처방이 있다.

2) 養生方

養生方에서는 외치요법이 사용된 제형은 8가지였으며 藥巾劑, 藥布劑, 坐劑, 湯劑, 膏劑, 漬劑, 藥囊劑, 自然劑 등이다. 自然劑 5개, 藥布劑 3개, 藥巾劑 2개, 湯劑 2개, 膏劑 1개, 漬劑 1개, 藥囊劑 1개, 坐劑 1개의 처방이 있다.

3) 雜療方

雜療方에서는 5가지 제형이 외치요법에 사용되었는데 藥布劑, 自然劑, 藥囊劑, 坐劑, 丸劑 등이다. 그 중 自然劑 4개, 藥布劑 4개, 坐劑 3개, 藥囊劑는 2개, 丸劑 1개의 처방이 있다.

27) 상계서, p. 446

28) 상계서, p. 446

29) 상계서, p. 448

30) 상계서, p. 155

31) 상계서, p. 450

32) 홍원식, 교감직역 황제내경 영추, 서울:전통문화연구회, p. 88, 1995

33) 상계서, p. 158

34) 김정범, 금계요략번석, 서울:한의학사, p. 105, 2001

35) 상계서, p. 522

36) 상계서, p. 606

37) 상계서, p. 607

38) 고제와는 다르게 蠟이나 膠質 상태의 제형을 말함.

39) 자연상태의 본초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제형 말함.

4) 胎產書

胎產書에서는 1개의 제형이 사용되었는데 漬劑를 사용한 1개 처방이 조사되었다.

5) 黃帝內經

黃帝內經에서는 2가지 제형이 사용되었는데 藥囊, 膏劑를 사용한 각각1개의 처방이 있다.

6) 金匱要略

金匱要略에서는 自然劑, 散劑, 湯劑, 坐劑, 丸劑, 漬劑, 類膠劑 등 모두 7개의 제형이 사용되었는데 각 외치요법제의 제형별 사용 예는 自然劑 10개, 散劑 6개, 湯劑 6개, 坐劑 2개, 丸劑 1개, 漬劑 1개, 類膠劑 1개의 처방이 있다.

3. 외치요법의 시술 방법

1) 五十二病方

五十二病方에서는 塗敷法, 按法, 洒浴法, 漬法, 熨法, 摩療法, 熏法, 約帶法 등 8가지의 시술법이 사용되었다. 塗敷法을 사용한 처방은 9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熨法 12개, 熏法 10개, 洒浴法 10개, 摩療法 3개, 漬法 2개, 約帶法 2개, 按法 1개였다.

2) 養生方

養生方은 插入法, 洒浴法, 塗敷法, 摩療法, 藥帶法 등 5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塗敷法 5개, 插入法은 4개, 洒浴法 3개, 摩療法 3개, 藥帶法 2개의 처방이 있다.

3) 雜療方

雜療方에서는 摩療法, 洒浴法, 插入法, 藥帶法, 熨法 등 5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插入法 7개, 摩療法 3개, 熨法 3개, 洒浴法 1개, 藥帶法 1개의 처방이 있다.

4) 胎產書

胎產書에는 洒浴法 한가지가 1개 처방에서 사용되었다.

5) 黃帝內經

黃帝內經에는 塗敷法, 熨法 두 가지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1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다.

6) 金匱要略

金匱要略에서는 洒浴法, 熏法, 摩療法, 漬法, 塗敷法, 插入法, 烙法, 吹管法, 含漱法, 埋法 등 모두 10가지 시술법이 사용되었는데 吹管法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洒浴法 4개, 塗敷法 3개, 漬法 2개, 插入法 2개, 熏法 1개, 摩療法 1개, 烙法 1개, 含漱法 1개, 埋法 1개의 처방이 있다.

4. 외치요법이 사용된 처방의 수

1) 五十二病方

五十二病方에서는 총 283개 처방 중에⁴⁰⁾ 128개 처방이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는데 諸傷에서 7개, 傷瘕에서 3개, 嬰兒索瘕1개, 嬰兒病癰 1개, 狂犬齧人 1개, 犬齧 3개, 夕下 1개, 烏喙中毒 1개, 蝮(厲下虫字) 2개, 蛭蝕人脰股膝 1개, 蛇 4개, 白處 2개, 大帶 2개, 螟 1개, 人病馬不癩 2개, 癩 2개, 癩 2개, 牡痔 3개, 牝痔 6개, 血痔 1개, 胸癢 1개, 疽 4개, 益疽 1개, 爛疽 1개, 爛 15개, 疔膿 4개, 疔傷 1개, 疔久傷 1개, 癩 18개, 癩痂 1개, 產痂 1개, 乾痂 2개, 蛇

齧 1개, 癩 1개, 身有體癰腫者 1개, 頤癰 1개, 皮膚美容 1개, 翬(影下李字) 3개, 蟲蝕 3개, 乾癢 6개, 身疔 4개, 露疔 1개, 疥 5개, *蠱者 1개, 去人馬虮 1개, 治虮(广下馬字) 3개로 조사되었다.

2) 養生方

養生方에 현존하는 처방은 총 88개이다⁴¹⁾. 그 중 16개 처방이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는데 不起 1개, 勺 1개, 去毛 3개, 病最腫 1개, 益甘 2개, 戲 2개, *巾 3개, 除中益氣 1개, 走 1개, 疾行 1개 등이다.

3) 雜療方

五十二病方, 養生方 다음으로 많은 처방이 수록되어있는⁴²⁾ 雜療方은 일부 내용의 손상이 심하다. 현재 식별이 가능한 처방은 총 40여 개 정도이다⁴³⁾. 그 중 외치요법이 사용된 처방은 16개로 內加에서 5개, 約에서 7개 *痒에서 1개, 蝨虫蛇射에서 3개의 처방이 조사되었다.

4) 胎產書

胎產書에서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면 10여 명의 처방이 실려 있다⁴⁴⁾. 그 중에 외치요법이 사용된 것은 1개 처방이 있다.

5) 黃帝內經

黃帝內經에서 약물이 사용된 12개 처방 중⁴⁵⁾ 외치요법이 사용된 처방은 내과질환에 寒痺에 1개, 季春痺에 1개로 모두 2개다.

6) 金匱要略

金匱要略에 사용된 처방은 총 278개다. 그 중에 외치요법이 사용된 처방의 수는 23개다.

내과질환: 百合病 1개, 頭風 1개, 脚氣冲心 1개, 狐惑病 2개

외과질환: 金瘡 1개, 浸淫瘡 1개

부인과질환: 婦人經閉不利, 臍癖, 白帶에 동일처방 1개, 婦人陰冷 1개, 陰中生瘡, 陰中蝕瘡爛에 동일처방 1개

치과질환: 小兒疳蝕齒 1개

구급방: 卒死 6개, 中喝死 1개, 尸厥 2개, 縊死 1개, 溺死 1개, 落傷 1개

5. 외치요법에 사용된 本草의 종류와 수

1) 五十二病方

五十二病方에 사용된 250여 개의 本草⁴⁶⁾ 중 외치요법에 사용된 本草132개는 다음과 같다.

(1) 광물성 本草

恒石, 竈黄土, 井中泥, 久溺中泥, 凍土, (口內米字)土, 鹽, 礬, 丹砂, 雄黃, 水銀, 煨鐵者灰, 金鉛(金鉛末)

(2) 식물성 本草

甘草, 烏喙, 續斷, 黃芩, 雷矢, 牛膝, 藤蕪本, 蒺藜, 白蒿, 青蒿, 蘭, 蘭根, 莖, 莖葉, 葵, 葵莖, 屈屈, 艾, 葶藶, 黎盧, 蛇床實, 白蘘, 半夏, 狼牙根, 白付, 僕桑, 魚衣, 苳夷, 漏盧, 麥, 菽, 黍, 秠米, 藜米, 青梁米, 庶, 姜, 薤, 葱, 苦瓠瓣, 陵(左未右支字), 桂, 辛

41) 상계서, p. 241

42) 상계서, p. 247

43) 상계서, p. 248

44) 상계서, p. 249

45) 상계서, p. 221

46) 상계서, pp. 231 ~ 232

40) 김남일, 인창식,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민문화사, p. 221, 2000

夷, 椒, (卅下酒字) 莢, 柳葦, 茱萸, 蓬蘽, 厚柑, 莖夷中核, 大皮桐, 桑汁, 榆皮, 芫華, 竹, 杏核中仁, 桃葉, 棗, 獨*, 駱阮, 鬱*(鬱金), 朮

(3) 동물성 本草

髮, 燔髮灰, 男子洎, 溺, 頭脂, 燔死人頭, 人泥, 乳汁, 黃雌鷄, 鷄血, 鷄卵, 雄鷄矢, 雉, 烏卵, 羊矢, 羖羊矢, 肥羶, 羊毛, 羊尼, 犬膽, 犬毛, 兔毛, 兔產腦, 彘矢, 牡鼠, 牡鼠矢, 鱧魚血, 鮐魚, 鮮產魚, 地膽蟲, 赤蟻, 蜚螻, 蚯蚓矢, 牡蠣, 龜腦, 蛭

(4) 기물 및 물품 本草

女子布, 女子初有布, 敝褐, 枲絮, 陳藁, 醴, 酒, 菽醬之滓, 膠, 穀汁, 澤泔, 久膏, 久脂, 兔膏, 牛煎脂, 羖脂, 車故脂, 釭脂, 飯焦.

(5) 未詳의 本草

考究, 이것을 분류해보면 광물성 本草가 13종 식물성 本草는 63종이다. 동물성 本草 36종 중 人部 本草는 8종이었으며 禽獸類 18종, 魚類 및 蟲類 本草는 10종이다. 술, 식초, 女子布, 兔膏, 豬膏 등과 같은 器物이나 物品 本草로는 19종, 그 외 미상의 약물인 考究 1종이다.

2) 養生方

養生方에서 사용된 本草는 100여종이 있는데⁴⁷⁾ 그 중 27개 本草가 의치요법 처방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물성 本草

桂, 乾薑, 蛇床, 苦瓠, 茯苓, 梓實, 桃實, 棗脂, 柳付, 麥苧

(2) 동물성 本草

牛肉, 弗選, 黃蜂, 蜂蟻(卅下一ノ下虫字: 蜂毒), 蚯蚓, 蜘蛛网, 守宮, 牡鼠腎, 烏卵, 鹿茸(月丑合字), 牛髓, 肥豨

(3) 기물 및 물품 本草

女子未嘗男子者布, 蜜, 醇糟, 醴, 猪膏

이것을 분류하면 식물성 本草는 10종, 동물성 本草는 12종, 기물이나 물품 本草는 5종이 사용되었다.

3) 雜療方

雜療方에 사용된 本草로는 현재 식별이 가능한 것이 대략 40여종 정도인데⁴⁸⁾ 그 중 의치요법에 사용된 本草는 23개 정도다.

(1) 광물성 本草

礬石, 竈黃土, 空壘

(2) 식물성 本草

桃毛, 桂, 薑, 椒, 蕪荑, 穀汁, 榆*, 陵藁, 巴菽, 蛇床, 棗膏, 黍米泔, 蘭葉,

(3) 동물성 本草

蚯蚓矢, 犬肝, 犬骨, 蜂蟻(卅下一ノ下虫字: 蜂毒)

(4) 기물 및 물품 本草

美醴, 蜜

(5) 미상의 本草

禹勳

이것을 분류하면 광물성 本草 3종, 식물성 本草 13종, 동물성 本草 4종, 기물이나 물품 本草 2종, 그 외 미상의 本草 1종으로 조사되었다.

4) 胎產書

胎產書에 사용된 약물은 모두 20여가지가⁴⁹⁾ 되지만 의치요법에 사용된 本草로는 광물성 本草인 市土 한가지가 사용되었다.

5) 黃帝內經

黃帝內經의 약물처방 12가지에 사용된 本草는 모두 30개다. 그 중 의치요법에 사용된 本草는 8가지다.

(1) 식물성 本草

蜀椒, 乾薑, 桂心, 桂,

(2) 기물 및 물품 本草

醇酒, 馬膏, 白酒, 桑鈎

분류하면 식물성 本草 4종, 기물이나 물품류 本草 4종으로 조사되었다.

6) 金匱要略

金匱要略의 278개 처방에 사용된 本草의 수는 147종⁵⁰⁾이다. 그 중 의치요법에 사용된 本草의 수는 33종이다.

(1) 광물성 本草

白粉, 竈中灰, 礬石, 雄黃, 鹽,

(2) 식물성 本草

甘草, 乾薑, 桂屑, 狼牙, 百合, 大附子, 蒴藋細葉, 桑東南根白皮, 蛇床子仁, 薤汁, 王不留行, 葶藶, 芍藥, 棗英, 川椒, 菖蒲屑, 黃芩, 厚朴, 黃蓮, 杏仁

(3) 동물성 本草

雞肝, 雞血, 馬屎, 雄雞冠血, 人溺,

(4) 기물 및 물품 本草

猪脂, 苦酒, 粥清

이것을 분류하면 광물성 本草는 5종이며 식물성 本草는 20종이며 동물성 本草는 5종이며 3종의 기물 및 물품 本草가 사용되었다.

고찰

馬王堆醫書 중 五十二病方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상의학 서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五十二病方은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등에 비해서 가장 많은 종류의 질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부과질환으로 23개, 외과질환으로는 18개, 내과질환으로 6개, 소아과질환으로 2개, 신경정신과질환 및 치과질환으로 각각 1개 이외에 피부병일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1개 대상질환에 의치요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 특기할만한 것으로 내과질환인 痔의 치료에 있어서는 종류를 脈痔, 牡痔, 牝痔, 血痔, 胸癢(腸痔) 등으로 나눠 치료하였으며 의치요법 11개의 처방으로 牡痔, 牝痔, 血痔, 胸癢을 치료하는 방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 11개의 처방을 살펴보면 내복처방이나 외과적 수술법 및 외치 결합치료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8개의 熏法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熏法이 諸痔의 주 치료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痔를 여러 종류로 세분화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痔에 대한 상당

47) 상계서, p. 241

48) 상계서, p. 248

49) 상계서, p. 249

50) 임건량, 왕귀묘, 경방중약연구집성, 북경:중의고적출판사, p. 13, 1992

한 임상적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충치와 같은 치과질환에 외치요법을 사용한 것이나 여드름⁵¹⁾, 피부미용에 관한 처방⁵²⁾ 등은 당시에도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뿐더러 외치요법적 치료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養生方에서는 외치요법으로 6개의 성 관련 내과질환과 4개의 양생법이 제시되었는데 戲에 적용된 외치요법은 상당히 僞藥效果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즉, 戲는 성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아리에 담아둔 守宮(도마뱀)에게 丹砂를 먹여 守宮이 죽으면 그 수궁을 찢어 만든 약을 여자의 팔 또는 전신에 발라 색을 물들여두었다가 그 색이 흐러지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처방은 呪術의 내용의 呪文이 없으며 당시 왕후·장상·사대부 등 통치자가 三宮六院 혹은 三妻四妾이라하여 방종하게 정욕을 추구하여 비첩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⁵³⁾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적인 배경 등을 고려하면 비록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呪術의인 내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僞藥效果를 노린 외치요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雜療方에서는 2개의 性 관련 내과질환과 1개의 부인과 질환, 1개의 외과질환에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는데 남녀의 性 보건에 관한 처방 등은 전문적 치료로 특기할만하다. 산부인과 의서인 胎產書의 1개 세육법 처방은 아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으로 산부인과 질환에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小兒科 영역의 양생법에 외치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⁴⁾. 黃帝內經은 素問의 熱論, 痛論, 風論, 痺論 등 외 다수 편과 靈樞의 癰疽, 經筋, 壽夭剛柔 등 외 다수 편이 임상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⁵⁵⁾ 외치요법이 사용된 경우는 經筋, 壽夭剛柔편에서 寒痺, 季春痺 등 내과 질환이며 마왕퇴의서나 금궤요략에 비해 외치요법을 사용한 대상질환의 예가 비교적 적다. 金匱要略에서는 외치요법이 사용된 대상질환 17개 중에서 각종 구급질환의 처치법으로 6개, 婦人經閉不利, 白帶下, 婦人陰冷, 陰中生瘡 등의 부인과질환이 4개, 百合病, 頭風, 脚氣衝心 등과 같은 내과질환이 4개, 金瘡, 浸淫瘡 등과 같은 외과질환이 2개, 치과질환 1개의 대상 질환에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성서 연대가 앞서는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등 馬王堆醫書에서 67개로 가장 많은 질병을 대상으로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다. 각 진료과 별로 보면 五十二病方에서는 외치요법 처방이 사용된 52개 질환 중 42개 질환이 외과 및 피부과 질환이며 6종의 醫書를 통틀어 외과 및 피부과질환이 45개로 가장 많고 내과 질환은 24개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것은 黃帝內經의 저술로 內科學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기인 당시에는 외치요법은 주로 피부병이 생기거나 독충 독사의 공격을 받거나 전투 노동 화상으

로 인해 외상이 생겼을 때 내과적 치료와 더불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형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6종의 의서를 통틀어 自然劑 39개, 膏劑 37개, 湯劑 28개, 散劑 22개의 순으로 다 빈도로 처방되었는데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으로 養生方이나 雜療方에서 性 기능 질환 치료제로 臍이나 배꼽에 삽입하는 약으로 藥膏, 榆皮 등을 이용하여 坐劑를 사용한 것이나 특히 勺에서 鼻腔에 藥布坐劑를 사용한 것 등은 제형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적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상과 질환에 따라 馬王堆醫書에서는 총 161개 외치요법 처방에 12가지의 제형이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의 저서인 黃帝內經이나 金匱要略의 제형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馬王堆醫書가 저작된 시대에 이미 다양한 제형으로 외치요법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馬王堆醫書의 161개 외치요법 처방에 나타난 12가지 제형 중에 自然劑를 사용한 처방은 29개인데 黃帝內經에서는 自然劑를 사용한 처방이 없었으나 金匱要略에서는 총 23개의 외치요법 처방에서 7개의 제형 중에 自然劑를 사용한 것이 10개였다. 6종 醫書를 통틀어 여전히 自然劑의 사용처방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당시 제약기술이 일부 전문적 시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초기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술법에 있어서 馬王堆醫書 에는 10가지의 시술법이 있는데 그 중 五十二病方은 塗敷法을 사용한 처방이 96개로 가장 많았고 熨法이 12개, 洒浴法과 熏法이 10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養生方은 塗敷法 5개 插入法 4개, 洒浴法과 摩療法이 각각 3개로 나타났고 雜療方에서는 插入法 7개, 摩療法과 熨法이 3개였는데 馬王堆醫書에서는 塗敷法이 101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시술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생보건에 관한 처방이나 性 보건에 관한 처방에서는 오히려 插入法이나 摩療法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아 대상질환에 따라 치료 효과적 측면이나 사용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술법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養生方에는 摩療法를 썼던 특이한 처방이 있는데 살아있는 닭을 사용하여 蜂毒을 채취하여 藥巾을 만들어 발바닥을 摩擦하는 방법을 썼다. 이 처방으로 보아 이 시대에 蜂毒이 이미 외치요법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蜂毒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이 시대 이전부터인 것으로 사료된다. 金匱要略에서는 외치요법의 처방 수가 26개로 馬王堆醫書의 161개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馬王堆醫書의 시술법과 같은 10가지의 시술법이 제시되었는데 구급처방으로 吹管法을 사용한 것이나 含漱法 등은 馬王堆醫書나 黃帝內經에는 없던 이채로운 시술법이다. 시술법에 있어서는 6종의 醫書를 통틀어 14가지 시술법이 있는데 馬王堆醫書에서 10가지의 시술법이 있고 黃帝內經에는 2가지의 시술법이 있으나 馬王堆醫書의 시술법과 같은 방법이며 金匱要略에는 10가지 시술법이 있으나 洒浴法, 熏法, 摩療法, 漬法, 塗敷法, 插入法 등 6가지는 馬王堆醫書의 시술법과 동일하며 烙法, 吹管法, 含漱法, 埋法 등 4가지는 새로운 시술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馬王堆醫書가 저술된 시기에 비해 金匱要略이 저술된 시기에는 시술법에

51) 김명숙, 오십이병방의 연구, 학위논문, p. 84, 1998

52) 김남일, 인창식,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민문화사, p. 126, 2000

53) 상계서, p. 379

54) 字者 且垂字 先取市土濡滿者 *之方三四尺 高三四寸 子既產 置土上 勿庸 * 命嬰兒 *上其身盡得土 乃浴之 爲勁有力

55) 김남일, 인창식,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민문화사, pp. 87~88, 2000

어서도 발전을 이루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이것으로 塗敷法이 4종의 馬王堆醫書에서 101개, 黃帝內經에서 1개, 金匱要略에서 3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는데 6종 醫書에서는 105개로 가장 많이 사용된 시술법임을 알 수 있다.

처방의 수를 고찰해보면 馬王堆醫書 중에서는 五十二病方이 128개로 가장 많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五十二病方에서 사용한 128개 외치요법처방에서 치료대상에 따른 처방의 수를 비교하면 癩, 爛, 乾癢 등의 순으로 피부과질환에 관한 처방은 79개로 가장 많고, 각종 외상이나 독사 등에 물린 蟲咬傷 등 외과질환에 사용된 처방의 수는 26개, 내과질환에는 15개, 치과질환에 3개, 소아과질환과 신경정신과질환 등에 각각 2개의 외치요법 처방이 사용되었으며 피부과 질환으로 추정되는 夕下에 1개의 처방이 있다. 養生方에서는 남녀 성 관련 내과질환에 10개의 처방이 사용되었으며 양생관련 내과질환에는 6개 처방이 사용되었다. 雜療方에서는 남녀 성 관련 내과질환 처방이 12개였으며 외과질환 처방 3개, 부인과 질환 처방이 1개였다. 胎產書에는 소아과 관련 양생처방이 1개 있다. 黃帝內經에는 내과질환에 사용된 외치요법 처방이 2개 있으며 金匱要略에서는 百舍病, 頭風, 각기충심, 狐惑病(狐蜃病) 등 내과질환에 5개의 처방이 있고 金瘡, 浸淫瘡과 같은 외과 및 피부과질환에 2개의 처방이 있으며 부인과질환에는 經閉不利, 臍癰, 白帶에 동일한 처방이 사용되었고 陰中生瘡과 陰蝕瘡爛에도 동일한 처방이 사용되었으므로 3개의 처방이 있고 치과질환으로 小兒疳蝕齒에 1개의 처방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구급방으로 12개의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처방의 수와 대상질환을 비교하여보면 피부위생이나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는 피부질환과 외과질환에 사용된 처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생활환경과 질병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판단할 때 이것은 당시의 생활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위생조건도 불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치요법이 주로 피부과 및 외과질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五十二病方은 283개 처방 중에서 128개 처방이 외치요법처방인데 45%를 약간 넘으며 養生方은 88개 처방 중에 16개 처방에서 외치요법을 사용하였는데 약 18%정도였으며 雜療方에서는 40개 처방 중에 16개 처방이 외치요법 처방인데 40%였고 胎產書에서는 10개 처방 중에 1개 처방이 외치요법 처방인데 10%였다. 이로써 馬王堆醫書 421개 처방 중에서 외치요법이 사용된 처방은 161개로 약 38%를 넘게 차지하고있으며 黃帝內經에서는 12개 약물처방 중 2개 처방이 외치요법 처방인데 약 17%정도를 차지하며 金匱要略에서는 278개 처방 중에 23개 처방이 외치요법 처방인데 이것은 약 8%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으로 보아 五十二病方이 6종의 의서 중에서 외치요법 처방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처방에서 외치요법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초의 종류와 수를 고찰하면 五十二病方に 사용된 250여 개의 本초 중 외치요법에 사용된 본초는 132개이고 養生方に 사용된 本초는 모두 100여 개인데 외치요법에 사용된 本초는 27개이고 雜療方に 사용된 本초는 40개인데 외치요법에 사용된 本초는 23개이고 胎產書에 사용된 本초는 20개인데 외치요법에

사용된 本초는 1개이다. 이로써 馬王堆醫書에 사용된 390여 개의 本초 중 183개의 本초가 외치요법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약 47%를 차지하였고 黃帝內經에서는 30개의 本초 중 8개의 本초가 외치요법에 사용되어 26%의 비율이었으며 金匱要略에서는 147개 本초 중에 33개 本초가 외치요법에 사용됨으로써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本초의 수나 비율로 볼 때 馬王堆醫書에는 식물성 本초가 83종 동물성 本초가 52종 물품이나 기물 本초가 26종 광물성 本초가 17종 미상의 약물 2종이 외치요법에 사용되었는데 비록 식물성 및 동물성 本초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黃帝內經이나 金匱要略에 비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本초가 외치요법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馬王堆醫書가 저술된 시기의 藥物學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馬王堆醫書의 성서연대는 黃帝內經이나 金匱要略보다는 앞선다. 오랜 세월로 인해 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현재 고증이나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外治療法이 사용된 대상질환, 제형, 시술법, 처방 수나 本초 면에서 볼 때 黃帝內經이나 金匱要略에서 보다는 馬王堆醫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분서갱유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많은 의서가 소실되었으며 黃帝內經 이후로 內科學의 발달로 인해 黃帝內經의 저술 이전에 다양하게 사용되던 외치요법의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사려된다. 馬王堆醫書에는 외치요법이 내과, 소아과, 치과, 피부과, 외과, 신경정신과 등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환에 따라 특정제형이나 시술법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외치요법이 특정한 몇 가지 질환에서는 이미 실험적 단계를 지나 임상적으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외치요법에 사용된 다양한 제형이나 사용된 약물 등을 고려할 때 약물학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질환에 관한 외치요법의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요법이 외상이나 蟲咬傷, 피부질환, 性 기능 관련 일부 내과 및 諸痔 등 외과 질환을 제외하고는 처방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나 자연제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외치요법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초기단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서 馬王堆醫書보다 후대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黃帝內經에서 외치요법의 임상에 관한 처방이 적은 것은 黃帝內經이 임상의학서가 아니라 한의학 이론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등 馬王堆醫書 4종과 黃帝內經, 金匱要略 등 6종의 고대한의서에서 사용된 외치요법을 조사하여 얻은 결론을 보면,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등 馬王堆醫書가 黃帝內經이나 金匱要略보다 성서연대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외치요법을 사용한 대상질환의 수, 제형의 수, 시술법의 수, 처방의 수, 사용된 本초의 수가 가장 많았다. 6종의 고

56) 상계서, p. 241

대 醫書에서는 외과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처방이 가장 많았고 내과 질환이 그 다음 순 이었다. 처방의 수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약의 제형은 自然劑이며 葯劑, 湯劑, 散劑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술법에 있어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塗敷法이다. 고대 외치요법에서도 식물성 本草, 동물성 本草, 광물성 本草 및 기물 本草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외치요법에 사용되었다. 손상된 글자나 확인할 수 없는 本草 등에 대한 추가 고증과 馬王堆醫書 이전의 외치요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더 많은 내용의 고대 외치요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신광호, 한의외치요법학, 서울: 대성의학사, 2000.
2. 배병철, 금석 황제내경 소문, 서울: 성보사, 1994.
3. 김남일, 인창식,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2000.
4.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北京中西醫學研究總會藏版
5. 홍원식, 윤창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6. 대한한의학회 외관과학회, 대한외관과학회지, Vol. 14, No.1, May 2001.
7. 대한원전외과학회, 대한원전외과학회지, Vol. 9, 1995.
8. 대한원전외과학회, 대한원전외과학회지, Vol. 1, No. 2, 1988.
9. 김명숙, 오십이병방의 연구, 학위논문, 1998.
10. 이익희, 마왕퇴의 귀부인, 서울: 일빛, 2001.
11. 郭(雨下渴字)春,李思澍, 黃帝內經詞典, 서울: 일지사, 1992.
12. 林乾良, 王貴森, 經方中藥研究集成, 북경: 중의고적출판사, 1992.
13. 장중경, 중경전서, 서울, 대성문화사
14. 신광호, 한방외용약, 서울: 도서출판열린책들, 1994.
15. 홍원식, 교감직역 黃帝內經靈樞,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5.
16. 김정범, 금궤요략변석, 서울: 한의문화사, 2001.